

한옥, 문화 공간이 되다

‘광산, 가옥의 세계-3악장’

시와 음악 흐르는 용아 생가
농사 놀이·체험 김봉호 가옥
달빛 아래 장덕동 근대한옥 연구

지난 2015년 시작한 ‘광산, 가옥의 세계’ 프로그램은 고즈넉한 한옥 문화재에서 인문학 강좌·공연 등을 진행하며 호응을 받고 있다. 광산구가 주최하고 광주시 등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3년째를 맞는 올해, ‘2017 광산, 가옥의 세계-3악장’이 더욱 풍성한 구성으로 펼쳐진다.

광산구는 용아생가(광주시 기념물 제13호)와 김봉호 가옥(광주시 문화재자료 제25호), 장덕동 근대한옥(등록문화재 제146호)을 지역 대표 인문 예술광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집 ‘나두야 간다’ 저자 박용철의 열이 서려있는 용아생가에서는 ‘용아로 꽃피우는 인문학 콘서트-술궂’이 열린다. 박용철의 문학을 중심으로 한 강연과 공연으로 꾸며지며 11월까지 매일 둘째주 수요일(오후 7시~8시30분) 만날 수 있다.

12월 첫 행사는 ‘생명’과 ‘평화’와 하나됨을 위하여’를 주제로 음악과 어우러진 인문강연과 시낭송을 선보인다. 문형식 DJ가 진행하는 ‘노래가 된 시, 시가 된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박애정씨가 박용철의 시 ‘떠나가는 배’를 낭송하고 김준태 시인이 ‘생명’과 ‘평화’의 문학’에 대해 이야기



지난해 광주시 광산구 김봉호 가옥에서 열린 ‘가옥의 세계’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가옥 설명을 듣고 있다. <광산구청 제공>

한다. 김봉호 가옥은 평생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농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마당을 수놓은 푸른 잔디, 담벼락에 핀 농소화 등 마루에 걸터 앉으면 사계절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는 매월(4~11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농가의 세계’가 개최된다. 온 가족을 대상으로 놀이와 체험, 공연을 통해 농가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김봉호 어르신에게 듣는 농촌 가옥과 농사 이야기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장덕동 근대한옥은 다양한 장르 음악 집결지로 꾸민다. 6월17일·9월9일·11월11일 오후 7시 마다 계절을 테마로 ‘야호(夜好)! 달빛 아래 장덕동 근대한옥’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극으로 만나는 근대한옥이야기를 비롯해 낭독극, 한옥음악회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전통공예체험 등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한다. 4월과 9월에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등을 통합한 축제도 연다. 오는 22일 용아생가에서는 ‘광산삼색가옥 봄맞이’가, 오

는 9월23일 김봉호가옥에서는 ‘광산 삼색가옥 가을견이’ 축제가 열려 흥겨움을 더한다. 인문학콘서트 ‘술궂’과 ‘야호(夜好)! 달빛 아래 장덕동 근대한옥’ 참가자는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 접수 받는다. ‘농가의 세계’(회당 35명)는 사전 예약을 통해 모집한다. 모든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월봉서원 홈페이지(www.wolbong.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960-3827.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윤우 트리오

수요일 저녁, 음악으로 한 박자 쉬기

12일부터 문화전당 예술극장 ‘ACC 뮤직라운지’

‘수요일 저녁에는 문화전당에서 음악회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예술극장 1 로비가 매주 수요일 클래식, 재즈,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ACC는 오는 12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ACC뮤직라운지’를 개최한다. ACC 예술극장 로비는 그동안 공연, 강연, 워크숍 공간 등의 다양한 변신을 보여 왔다. 첫 공연은 ‘박윤우 트리오’의 감미로운 기타 선율이 있는 재즈 무대다. 클래식 기타리스트에서 재즈 뮤지션으로 전향한 박윤우가 이끄는 박윤우 트리오의 김성수(베이스), 이도현(드럼), 조정희(보컬)가 출연한다. 클래식, 영화음악, 가요, 재즈 스탠더드 음악을 기타위주의 서정적인 곡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19일 두 번째 라운지는 프랑스의 로망틱 재즈를 들려주는 ‘트리오 봉봉’(아코디언·피아노 유승호, 기타 준스미스, 베이스 최성환)과 스페셜 게스트로 재즈 보컬리스트 혜원이 출연해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와 집시 스윙 등을 선사한다.

5월 10일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목관, 금관·타악 앙상블이 꾸미는 무대

로 평소 쉽게 들어볼 수 없던 섬세한 목관의 음색과 웅장하고 화려한 금관사운드도 영화, 광고 음악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을 들려준다.

5월 17일과 24일은 김상연(전남대 국악학과) 교수의 사회와 함께하는 퓨전 국악 무대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노트’를 주제로 열리는 17일 공연에는 국악을 기반으로 한 월드 뮤직 그룹 ‘리딩톤’과 스페셜 게스트로 이영훈(대피리), 하윤주(보컬)가 출연한다. 24일에는 국내 재즈의 대중성에 기여해온 밴드 ‘프렐류드’와 경기 민요 이수자인 국악인 전영랑의 색다른 콜라보레이션 무대 ‘모던 소리 나들이-우리 소리’와 재즈의 색다른 조합이 공연된다.

마지막 6월 7일에는 프랑스 피아니스트 ‘레미 파노시앙(Remi Panossian)’과 미국 재즈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 재즈 보컬리스트 전승아의 무대가 준비돼 있다. 2010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통해 국내 팬들과 처음 만난 이후 매해 내한 공연을 갖고 있는 한국을 사랑하는 재즈 뮤지션이다.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 콜센터(1899-55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트리오 봉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0년...나아갈 길은?

문화도시조성포럼·기자협회

12일·20일 광주YMCA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지나온 10년, 나아가야 할 길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두차례 연다. 12·20일 오후 2시 광주YMCA 백제관.

12일은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아 ‘문화산업·예술진흥’ 분야를 살펴본다. 문화산업 분야는 한하경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문화정책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한 뒤 이병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담당, 김효성 kbc 보도제작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예술진흥’ 분야에서는 강수미 동덕여대 예술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조인호 광주비엔날레재단 정책기획실장과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20일에는 김옥조 광남일보 편집국장의 사회로 ‘시민문화예술교육·문화인력 양성’ 분야를 조명한다.

시민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정선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육 전문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정민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박형주 광주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장이 토론한다. 문화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김인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와 박진현 광주일보 편집국 부국장, 조현희 ‘예술의거리’ 총감독의 토론이 이어진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위안부 소녀상 망언 일본 작가 소설 퇴출

SNS에 “동상 앞에서 사정하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두고 트위터에서 망언한 일본 작가 쓰쓰이 아스타카(筒井あすか·83)의 소설이 국내 서점가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출판사 은행나무는 “작년 12월 출간한 ‘모나드의 영역’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서점에 유통 중인 종이책과 전자책 판매를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나무는 올해 하반기 출간 예정이던 소설 ‘여왕의 라고스’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국내 에이전트와 일본 저작권사에 통보했다. 은행나무 관계자는 “작가의 문학적 성취와 별개로 한일관계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크게 실망했다. 작가로서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의 태도와 자

질에 대해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낀다”고 말했다.

‘모나드의 영역’은 철학·신학·양자역학을 횡단하는 작가의 세계관을 추리소설 형식에 담은 작품이다. 북스토리도 이날 쓰쓰이 소설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북스토리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인기를 끈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포함해 ‘파프리카’ ‘속물도감’ 등을 출간하며 작가를 국내에 주도적으로 소개해온 출판사다.

쓰쓰이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가미네(주한일본) 대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 위안부상을 용인하는 꼴이 돼 버렸다. 그 소녀는 귀여우니 모두 함께 앞으로 가서 사정해 정액투성이로 만들고 오자”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향동점과 그외 10곳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